



**350 ppm**

**라운아띠 18기 베트남 팀.**

01.



우리들의 지구 살리기 실천

## 1. 쓰레기 분리수거



재열이는 평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았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

350 ppm

## 2. 휴지 사용 자제



수연이는 평소 무심코 휴지를 사용했던 습관을 고쳐,  
휴지 사용량을 줄이고 휴지 대신 걸레를 사용하기 시작.

350 ppm

###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희는 평소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습관이 있었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주문할 때 적당량만 시켜 다 먹기 시작함.

##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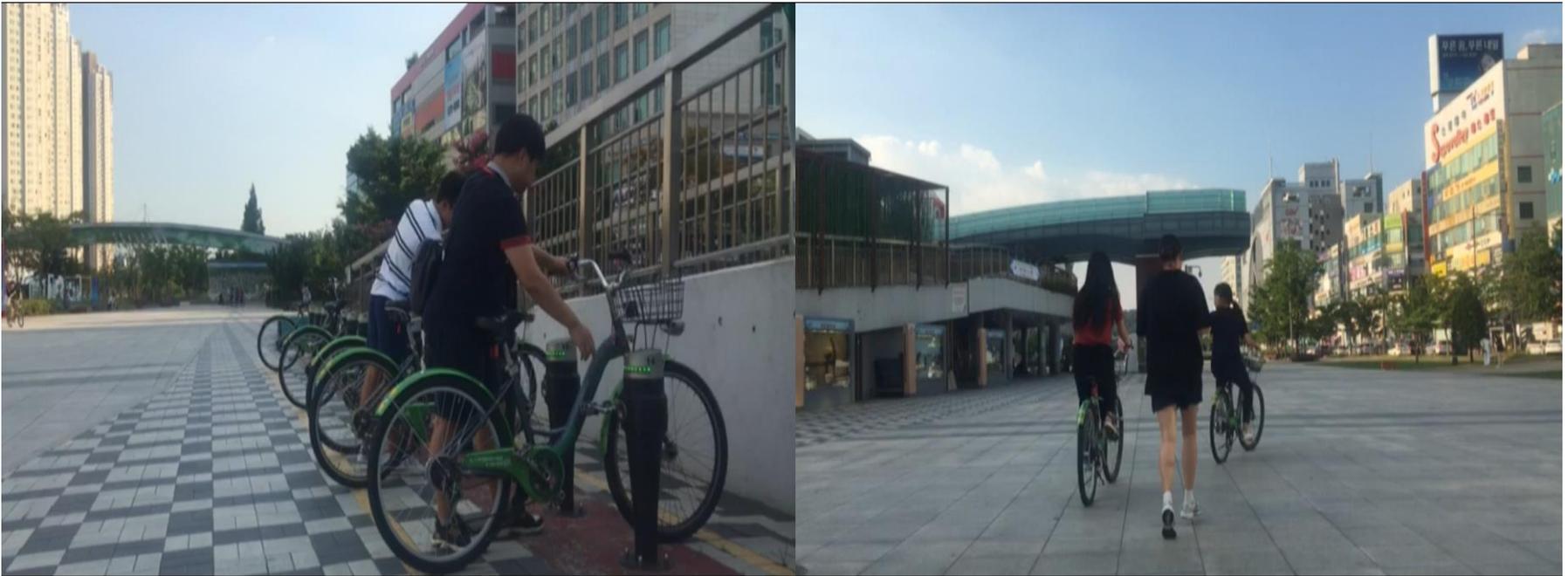
상표는 평소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였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시  
작함.

## 5. 물 절약



수민이는 평소 양치와 세수할 때 물을 틀어 놓고 씻는 습관이 있었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물을 받아 놓고 씻기 시작함.

## 6. 자전거 타기



우리 단원들은 평소 택시 타기가 습관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350ppm을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날은 자전거(페달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02.



소감

350 ppm

내 생활 뿐 아니라 '나 자신' 을 350ppm을 하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거 같다. 환경문제가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 역시 '이걸 내가 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함으로써 한 명씩 달라진다.'고 생각하니 조그만 행동부터 바꾸기 시작했던 거 같다. 실천이 정말 어려운 거지만 ppm 활동을 하면서, 생각부터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소희

# 350 ppm

사실 나는 평소 충분히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낭비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텀블러, 물 사용법, 음식...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지구 살리기 실천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개인의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 포함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번 아띠들과 함께한 350ppm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베트남에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리라 다짐하였다.

수연



# 350 ppm

350PPM 활동을 접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쉬운 활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했을 때 나는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까먹고,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많았다. 결코 쉬운 활동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불편함 속에서 실천했을 때 '기분좋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활동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천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확실하다. 지난 3주간은 '머뭇거리는 나'이었지만 앞으로는 '완벽히 실천하는 나'를 그려본다.



## 재열

# 350 ppm

평소 환경보호, 탄소배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들으면 '아 또 그 이야기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전체훈련에서 350ppm에 대해 교육받고 지역 ymca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환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실천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되었다. 실천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천리 길은 한 걸음부터, 350ppm은 나부터.'

## 상표



# 350 ppm

처음에 350ppm을 시작할 때 '나 정도면 정말 잘 지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평소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 아무렇지 않게 종이컵을 쓰고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환경 파괴범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 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에코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안산에 있을 때만 아니라 서로 집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350ppm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수민



감사합니다